학회장 입후보 소견서

성　　명 : 안 성 규

소　　속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전략연구소

직　　위 : 객원연구소

한국국가정보학회 제13대 학회장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이 정견 또는 공약을 제출합니다.

1. 출마 정견

2025년 초, 학회는 암울했습니다. 내홍으로 쪼개졌던 학회의 상처는 여전히 벌어져 있었고, 재정은 바닥이었습니다. 미래는 안보였습니다. 엄동설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꽉 찬 2년. 오늘 학회에는 그나마 온기가 모이고 빛도 들어옵니다. 이상호 회장의 열정적 리더십과 회장단의 노력, 그리고 외부 지원으로 학회는 겨우 회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를 둘러싼 안개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본격 부흥의 기치를 내세워야겠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학회는 아직 약합니다.

차기 회장엔 이를 헤쳐나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석 부회장으로 회생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역량껏 도왔으며, 아울러 편집위원장으로 학회의 학술적 수준 유지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학회가 회생의 강도를 더 높이는데 크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학회는 회원의 것입니다. 학회를 통한 회원의 발전, 그리고 회원의 뜻에 따른 학회의 발전을 위해 귀를 크게 열고, 손발은 부지런히 놀리겠습니다. 여전히 형편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물러날 즈음에 학회가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요 공략

웅장한 구호를 세우고 싶지만 현실을 두루 고려할 때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내실을 제시하겠습니다. 당분간 이상호 회장이 설정하고 실현한 방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섯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학회의 정체성 확충입니다. 지난 2년간 학회는 정보학계와 정보 주체에 기여가 되고자 학문과 현장을 접목해 왔습니다. 과거 학회와 다소 차별되는 지점입니다. 저도 학자들이 주축인 세미나만큼 정보와 관련된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산학 Workshop을 늘리겠습니다.

둘째 학문의 외연 확대입니다. 학회지의 전문성에 대해 다양성과 깊이가 제한된다는 긍정적이지 못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확충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학문적 교류 확대. 재생에 몰두하면서 다른 학계와의 교류가 제한됐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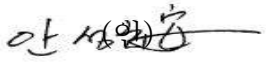
넷째, 회원 건강성 회복입니다. 과거 왕성하게 활동하던 많은 회원들이 어둡던 시기

에 관심을 줄이거나 끊었습니다. 회원은 학회의 근간입니다. 새로운 모습을 통해 회원이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암흑기의 여파이기도 합니다만 회원 고령화가 눈에 띕니다. 이래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정보 현실을 학회가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학회에 젊은 피가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견 또는 공약은 자유롭게 작성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후보자 신청인 안 성 규 

한국국가정보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